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英帝戴冠式의 政治的重大性
大英帝國紐帶로서의皇帝

一

昨十二日을 期하야 英國倫敦 웨스트민스터寺院에서는 宏壯한 新帝 죠지六世陛下의 戴冠式이 擧行되엇다。英帝國政府全閣僚、自治領首相、各植民地總督은 말할것도업고 全世界 各國元首及 代表도 參席한만큼 英帝國의 一大盛事임은 勿論이오 全世界的으로도 드물게 보는 盛典이다。이미 儀式의 順序에도 發表된바와가티 이 盛典은 十二日의 戴冠式을 비롯하야 陸軍大觀兵式、海軍大觀艦式、賜饌、夜會等 連續한 儀式으로 今五月 一個月을 要하며 오는 十四日부터는 各自治領代表의 來倫을 機會로 大英帝國結合의 意識을 一層 徹底키爲하야 英帝國會議를 開催한다。그러므로 今次의 英新帝戴冠式은 單純한 英皇帝即位의 儀式으로만 볼것이아니라 大英帝國의 政治的 關係로보아 實로重大性을 가젓다 할수잇다。

二

英國이 新帝戴冠式을 單純한 儀式에 끄치지 안코 大英帝國의 政治的 重大意義를 삼으랴 하는것은 英帝國이 現下 處해잇는 政治的 狀態의 시키는바다。누구나 아는바와가티 英帝國은 英本國 加奈陀、濠洲、新西蘭、南阿聯邦、愛蘭自由國等의自治領及 印度帝國、保護國直轄植民地로 構成되엇는데 以上 自治領은 本國과 對等한 地位에 잇고 決코 隷屬的 地位에 잇지 안타。詳言하면 各自治領은 自治領의 好意的 自由意思에 依하야 英帝國을 構成하야잇고 決코 英本國의 强制、支配下에잇지 안타。딸아 英帝國 皇帝의 各自治領에 對한 地位는 英本國의 英皇帝에 對한것과 마찬가지로 英皇帝는 自治領政府及 議會에 對하야 反對、拒否의權利를 가지지 못햇다。그러므로 大英帝國이 崩壞를 免하고 現狀을 維持해나가랴면 本國과 各自治領의 結合을 要求하나니 어리하랴면 英皇帝라는 紐帶로써가 아니면 强級한 結合을 바랄수 업다。先帝에드워드八世의 結婚問題를 둘러싸고 뽈드윈首相이 一時 東馳西驅한것은 어느皇帝의 英帝國構成에의 重大性을 認한 때문이다。

三

今日 外電은 自治領으로서의 하나인 愛蘭自由國이 代表를 戴冠式에 보내지 안엇슬뿐아니라 首都 떠불린을 비롯하야 北愛蘭 얼스터州에서는 示威運動과 暴動이 勃發하얏다한다。昨年先帝退位問題時에 愛蘭은 緊急議會를開催하고 總督을 廢止할것、執行委員會가 在外使臣을 任命할것 等 重大事項을 決議하야 事實上 獨立을 宣言한지라 今日의 戴冠式에 際하야 如上의 事實이 잇슬것을 斟酌하얏든바이어니와 英帝戴冠式이 一葦帶水의 愛蘭海峽을 건너 倫敦에서 宏壯하게 擧行되는데 首都 愛蘭에서 反對的 示威가 擧行 되는것은 帝國의 榮譽와 權威를 자랑하는 大英國의 一大悲歡事라 할것이다。그러나 年前 吾人이 本欄에서 論한바와가티 英國이金科玉條로 삼는 立憲政治 代議政治를 愛蘭이 實行하고잇는今日 兵力으로서 愛蘭을 征服할수도업는 形便이라 오죽 茫然하지안을수업을것이다。

四

英國은 過去 一世紀半동안에 內로 人民의 政治的自由를 獲得하엿고 外로殖民地를 獲得하야 五自治領가튼것은 英本國의 地位에까지 向上시켯다。이제와서는 이自治領은 散布와가티 分離할程度에 이르럿다。最近英國이 經濟的結合의 必要를 力說하야 英帝國의 結合을 꾀하나 이것은 오죽 自治領의 好意와 利害關係로 되어잇다。一旦 自治領에 重大變化가 생기는날 이紐帶는 힘업시 斷絕될것이 分明하다。愛蘭은 그 代表的 標本이 아닌가。英本國이 新帝戴冠式을 重大視하고 이것을 機會로 英帝國會議를 開催함도 이러한 內面을 엿볼수잇다。

國際通貨會議의 招請決議案提出
米民主黨議員、下院에

【華府十一日發同盟】 텍사스州選出民主黨下院議員 마틴·다인스氏는 十一日國際通貨會議招請決議案을 下院에提出하엿는데 決議案의內容은 如左하다

루즈벨트大統領에對하야 左의諸目的을 達成키爲하야 速히 國際通貨會議를 招集할權限을 賦與한다

一、購買力의大福動搖를 防止하기爲하야 어떤恒久的基礎를세우고 그우에 各國通貨를安定시킬것

一、各國通貨를爲하야 金銀複本位의基礎를 確立할것

一、世界各國에 金銀을 再分配하야 가장公定하게 金銀을供給하며 各國通貨에對하야 適當한支持를與하야 國際交易上 充分한媒介를與할것

一、原料不足國에對하야는 原料資源獲得의充分한機會를與할것

決議案提出에 際하야 다인스氏는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米國은 多額의 金流入으로重大한經濟上 諸困難에 逢着하고잇는바 이困難을 打開함에는 確固한 通貨制度를 復活할밧게 다른方法이업다 現在 不公平한 金銀의分配는 各國通貨政策의 誤謬에 起因되니바로 米國政府도 亦是 此等各國의 通貨政策에左右되여 現在의 通貨對策을 講究하고잇슴에 不過하다 各國政府가國際貿易에 依하야 世界의産業을 繼續함에 必要한 原料를 充分히 獲得할수 업기때문에 失業群이 나오며 各國間에敵意를 發生케하야 必然的으로 征服을爲한 戰爭을 惹起하는 故로 米國政府로서는 卒先하야 國際會議를 招請하야 困難을 打開하지아니하면 아니되다

曠古의大盛典 英帝戴冠御儀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御參列

【倫敦十二日同盟特派員發】 曠古의盛典 죠지六世、엘리자벳皇后兩陛下의 戴冠式은 十二日午前 英國教會의 大伽藍웨스트민스터寺院에서 秩父御名代宮、同妃兩殿下를 奉始하야 世界五十五個國代表參加하에 盛大히 擧行하엿다 當日午前三時四十五分 새벽의靜寂을 깨트리는 하이드팍에서 廿一發 런던塔에서 四十一發의 禮砲가 殷殷히 들리자 塗油戴冠의 盛儀는 全世界의 慶祝裡에 開始되엿다

이御盛儀를 마지하야 벅킹감宮殿內에는 새벽부터 着着準備가 進行되여 午前八時頃에는 秩父御名代宮 同妃兩殿下를 奉始하야 世界五十五個國代表가 續續參集 同八時卅分에는 鹵簿의 準備도 完全整頓되엿다 그리하야 八時四十分에 이르러 先驅行動을 開始하야 儀仗隊等 鹵簿가 肅肅히 宮殿을 出發하엿다 秩父御名代宮殿下께서는 陸軍少佐의 御正裝 同妃殿下께서는 菊花御紋章의 刺繡御洋裝을 입으시고 第一鹵簿第廿一番째의 自動車에 御座乘 다음에 前田事務官 本間少將 新見少將等隨員이 廿二號車로 兩殿下의 御召車에 隨行하고 이에이여 米國代表제라드氏 퍼싱將軍 佛國代表달보스外相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 猶太代表 폰·부룬벌將軍 伊太利代表그란디大使、체코代表호자首相 波蘭代表베네쉬外相 芬蘭代表스테이外相、墺太利代表슈미트外務次官 埃及代表나하스파샤首相等 國際政局의 巨頭가 綺羅星과如히 뒤따르고 第二鹵簿에는 그로슈터公、켄트公兩殿下其他英國皇室의 諸位가 御正裝으로 御通過 其後에 뽈드윈首相을 비롯하야 英本國政府의 閣僚諸公이 뒤따른다 第二鹵簿가 出發한지 얼마 안되어 午前十時半 하이드팍、런던塔에서 殷殷히 들리는 禮砲裡에 第三鹵簿가 王宮을 出發하엿다 英帝죠지六世 皇后엘리자벳兩陛下께서는 御式服을 召하시고 鹵簿의中央 儀仗騎兵의 御警衛裡에 金色燦爛한 八頭御馬車에 御座乘 直後에는 皇帝旗燦爛히 빗난다 鹵簿는 宮殿前 廣場빅토리아女皇記念碑左右의 特別拜觀席의 上下兩院議員 樞密院議員을 비롯하야 沿道十重廿重의 拜觀裡에 肅肅히 센트·제임스公園을 右로 센트·제임스宮을 左로보면서 並木道「자몰」에 나와 아드미랄티凱旋門을 通過하야 트라팔가스쿼아로부터 陸軍、大藏、內務、外務各省이 並立한 官衙街와이트홀을 通過하야 約四十分後 팔라멘트廣場에서 式場웨스트민스터아베이에 到着하엿다

塗油의御儀

式場웨스트민스터 大寺院은 鹵簿가 到着하기前에 칸다베리大僧正의 손으로 聖油壺의 御聖油準備가 着着進行되여 聖油를 金盞에담어 中央祭壇에 노코 大僧正의 聖別을 밧고 聖歌隊의 齋唱이 들릴때 第一、第二鹵簿는 이미到着 英皇室의 各宮殿下는 向하야 右便에 各國代表皇族殿下는 向하야 左便 祭壇族 外國에는 下院議員 그리고 前方右便에는 各國大使 印度王侯左便에는 英本國閣僚 自治領首相이 各其定한 席에 着席하자 歌隊가 聖歌의 一小節을 마친다 이때大寺院西便大扉가 열리자皇后엘리자벳陛下께서는 天鵞絨의 御椅子에 御衣를 召하시고 院內에 入御하시사「安息의椅子」에 御着席하신다 이때午前十時五十五分하이드팍에서 二十一發런던塔에서 四十一發의 禮砲가 殷殷히 들리는것으로 曠古의 大典이 開始된다는것을 全國民에게 한다 皇帝죠지六世陛下께서는 天鵞絨의 御衣를 召하시고 入御 웨스트민스터의 데인(首長)司祭의 御先行 王冠其他御物捧持者를 前後에 거느리고式壇에 나온다 칸다베리大僧正은 高僧六名을 거나리고 御前에進하야 東面하고 參列한 皇族貴顯에 對하야「王者에對하야 敬意와 奉仕와를 捧할用意가 잇는가」設問하매 웨스트민스터寺院의 聖歌隊員으로 敬意에 應하야 「……하시라」고 述하매 參列한貴顯도 齊唱 大僧正은 다시 南、西、北의 三方에 向하야 宣言하고 會堂의 四方으로부터 「忠誠을 바친다」 後 皇帝께서는 皇后御側의 「安息의椅子」에 着席하신다 다음에 壯嚴한 誓約式에 移行하야 皇帝께서는 칸다베리大僧正의 設問에 對하야 「余가 玆에 約한바를 다하려한다 神이여 余를 도우라」고 宣言하시고 聖書의 要한傳第一章에 接吻하시고 誓文에 署名하시사 戴冠의 宣誓를 마치압시고 「聖에드와드椅子」가까이 進御하시사 默禱를 드리고 同椅子에 御着席하시매 가타의 騎士四名은 金色燦然한 祭袍로써 皇帝를가리고 塗油의 秘儀에入하야 大僧正은 손가락에 聖油에담그고 『聖父와 聖子와 聖靈의 御名으로』 皇帝의 額과 兩手掌에 十字를그리고 皇帝를 祝福하고 塗油의御儀를 終了하자 죠지六世陛下께서는 神前에 誓約한 元首가되신다

戴冠의御儀

戴冠의御儀에入하야 皇帝께서는 椅子에서御起立 寺院理事長이 捧呈하는 레이스織의 無袖御衣 코로미옴신드니스를 召하신 다음 잉글랜드를 象徵하는 紫色의 薔薇 愛蘭을 象徵하는 三葉의 스코틀랜드를 象徵하는 蘇의 로버의 刺繡燦爛한 스토-르를 거듭입으시고 金色의帶를 띄신 다음大僧 騎士道國章의 首長인 各象徵物을 御身에부치시고 最後에 풀을召하시고 右手에十字笏 左手에五笏을드시고 聖에드와드椅子에着席하시매 大僧正은 聖에드와드의王冠을 皇帝께 捧呈 戴冠의 말삼을 述하야曰 玆에 我等이 祝福의 奉行에 依하야 陛下가 바든信仰과 儀禮의 遂行의 成果를드려 其王國이 永遠히 滅치안는 神의 恩寵에 依하야 永遠한王國을 獲得하기 爲하야 神은 榮光과 方正과의 王冠을 陛下께 冠한다 이때 鼓와 喇叭소래가 堂內에 올리자 參加한 貴顯은 웨스트민스터 靑年歌隊의 先唱으로 英國歌聲和唱하매 밧게서는 하이드팍 런던塔에서 禮砲가들리고 慶祝의소리는 津津浦浦를 뒤덥는다 皇帝께서는再次祝福을 바드시고 『安息椅子』에 도라오시자 大僧正은皇帝께 毅然히여러나 王室과帝國과의 權威와 그地位를擁保하라고述하고 皇帝의압헤 跪坐하고各僧正도跪坐하야 大僧正은一同을代身하야 忠誠을誓하고 皇帝의左腕에 接吻한후 各皇族도 自席에跪하야 脫帽하야 尊敬의 말슴을드리고 다음大僧正은 王冠에 各貴族代表는王座에 나아가豐에接吻한후「神이여 죠ㅣ지六世를 도으소서 죠ㅣ지六世萬歲」의 소리가 全 會堂을 壓하엿다 繼續하야 칸다베리ㅣ 大僧正은 皇后엘리자벳陛下에 對하야 皇帝에對한것과同樣으로 塗油의御儀戴冠의 御儀를 執行하고 皇后께압서는右手에 女王의 笏 左手에象牙의 權杖을쥐고王冠을 드리 皇帝의압해 從順을 誓하고 皇帝의御後에 着席하엿다

聖餐式

塗油戴冠의 御儀가 終了되는 同時에 皇帝皇后兩陛下는 王冠을버스시고 祭壇의階에 跪하야 聖餅과 葡萄酒를 밧으시사 玆에 壯嚴한 御儀는 終了되엿다

御儀式이 終了되자 各國代表는 上院에서 午餐의 饗應을 受하고 隨時歸還하엿다

御儀를 終了하엿신 兩陛下께서는 午後二時十五分 웨스트민스터寺院을 出發 파라멘트廣場을거처 웨스트민스터河畔에나오서서 再次트라팔가廣場을 지나시사 피가델리·리젠트街 옥스포드街等을 經由 마블凱旋門에서 하이드팍에沿하야 콘스티튜숀힐을 御通過午後二時五十分無事버킹감宮殿에 還御하엿다 御鹵簿의通過하는 英國使臣多數가 參加하야 實로 數二哩에 及하고 其御路邊에는 倫敦繁華한 거리인만큼 商店住宅等 意匠을 다한 奉祝의 誠意를 披瀝하야 一般拜觀者는 展望席에 몰려 倫敦市內는 全然慶祝의 一色으로 充溢되엿다

朝鮮語辭典完成論
朝鮮辭典嚆矢는 佛人의韓佛字典

崔鉉培

讀者여러분中에 만약 나의말을 의심하는분이 계시거든 老少의 家族을 거느리고 혹은 靑年學徒를 거느리고 一日의 淸遊를 山野에 차즈라。그리하여 눈에 뜨히는 鳥虫과 손에 잡히는 花卉의 이름을 自問 혹은 他問하여 보라。그리하면 여러분 自身의 또老少同行의朝鮮語 語彙數가 얼마나 貧弱하며 그知識이 얼마나模糊함을께칠것이다。또그리하지안커든 서울거리夜市에서 파는 얼골마등 한책을 五錢 혹은 十錢을 주고 사서 한번읽어보라。그리하면 그中에서 自己가 알지못할 말이 얼마나 만흔가를 發見하리라。또 그리하지안커든 한번 杜詩諺解、圓覺經諺解가튼 古書를 끌러보라。그리하면 그中에서 平日에 조선말은 다안다고 自處하든「내」가 얼마나 可憐한無識者 可恐할 妄想家 可憎할自侮漢임을 發見하지아니할수업을 것이다。──이러고도 오히려朝鮮語辭典의 必要를 切實히 느끼지 아니할者ㅣ어데잇스리요。

또 우리는 서울말은 알되 그에 當한 시골말을 모르기도하며 시골말은 알되 그에 該當한 서울말은 모르기도하니 이것을가르처줄이가 누구이냐?더구나 나의座右에서 恒常 나의 疑問을待合하고잇슬 親切한 賢師가 누일가?──朝鮮語辭典은 正히그 要求에 應할수잇는 唯一의賢師良友가 될것이다。

또 우리가 조선글로 바로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한장 글월한마듸를 적어보라。그리하면 그글월句節에서 스스로 의심을 말을수 없을 것이다。이類細瑣多한 質疑에 應答하여 줄者ㅣ 朝鮮語辭典이 아니고 누구일가?

또、여러분은 朝夕喰炎의 常俗語를 反省的態度로써 그뜻을 다저 본 일이 업지아니한가。또、여러분은 家庭의 子女로부터、學校의 生徒로부터、社會의 親知로부터、朝鮮의 風俗、習慣、制度、文物이나 朝鮮語의 語意나 朝鮮文의 正字法(바른 마춤법)에 關한 問議를 받아 본일이 업지 아니한가? 만약 잇다면、그 境遇마다、自己의 朝鮮語識의 不足함과 朝鮮語文의 知識의 貧弱함을 무엇으로서 充하려 하엿는가?

支那의 漢字에 對한 疑問은 全韻玉篇、康熙字典으로써 채우며、英語 知識의 不足은 英語辭典으로서 기우며、國語의 疑問은 大言海나 廣辭典으로 解決하며 佛語의 疑問은 佛語辭典으로서 解明할 줄 알면서、一홈로 조선말에 對한 疑問은 朝鮮語辭典으로써 解決할 方途를 모른다면、이는 너무도 甚한 어리석음과 어두움이 아닐가?

三、朝鮮語辭典의 史的考察

朝鮮은 長久한 文化的 歷史를 가진 古土인이 만큼 李朝 宣祖時人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二十卷) 光海主 時人 李睟光의 芝峰類說(二十卷) 英祖 命撰、高宗 命增의 增補東國文獻備考(百卷)와 가튼 百科辭典類가 아주 업는 바 아니로되、이는 다 漢文으로 著述한 特種의 辭典이어요、朝鮮語의 普通語의 解辭典은 일지거 우리의손으로지어 낸것이 잇지 아니하다。이 普通語의 註解辭典은 近代에 손으로 써 外人의 손으로 始作되엇다。

가장 먼저조선말의 辭典을編纂한이는 佛蘭西 宣敎師들이니 距今 半世紀前에 體裁 整然한 『韓佛字典』(一八八〇)을 내엇스니 이것이 實로朝鮮語辭典의嚆矢라할것이다。

다음에 그뒤十年이 지나 米國人 元杜宇牧師(H.G.Underwood)의 韓英字典(一八九〇)이 나오고 또 그뒤七年만에 英國人 奇一牧師(J.S.Gale)의 韓英字典(一八九七)이 나왓다。이奇一의 韓英字典은 그뒤 두번이나 增補되어 現在로는 最大最新의 朝鮮語辭典노릇을 하고잇음은(今日은 公刊수업는) 事實이다。다음에 朝鮮總督府編纂의 朝鮮語辭典(大正九年)이 나오니 朝鮮의 典故에關한 註釋은 가장權威를 가지고잇다。

이박게 朝鮮語外의 말을 조선말로 註釋한 辭典으로는 元杜宇牧師의 英韓字典、宣教師會의 羅韓辭典(最近增補)、스코트의 英韓辭典、알렌베의 法韓字典、船岡獻治의 鮮譯國語大辭典、元漢慶 博士의 英韓字典、金東成氏의 英鮮字典等이 잇스나 어느는다 그 目的이 正反對로 다른 것이즉 朝鮮語辭典이란 名目下에 列擧하기 어려운 것이다。(未完)

朝鮮最初의試驗

現代의 勝利는 宣傳에잇다。國際間의 武力戰爭이 宣傳에 重大한 勝敗의鍵을 掌握하고잇는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商業에 잇서서도 成敗의 主要原因이 宣傳如何에잇다는것은 進步한 廣告의實蹟이 가라치는바다。實로 大産業을 이르키고 大貿易을 發展시키자면 宣傳의 힘을 빌지안코는 成功을 바랄수업다。이리하야 歐米의 先進諸國은 말할것도 업고 가까운 日本內地서도 宣傳을産業의 一大標語로 삼고잇스니 形形色色의 宣傳戰은 이것을 말하는것이다。朝鮮도 新産業思想이 輸入된지 어미 數十年朝鮮의 産業은 어제 바야흐로 建設의 途程에 잇다。그러므로 朝鮮의 企業家、商業家가宣傳戰에어떠케展開할것이냐 하는問題는 全朝鮮産業界를通하야 時急且 重大한 問題다。本社는 이에鑑하야 今次 日本內地 廣告界의 權威를 招聘하야 左記規定에 依하야廣告學講座를 開催키로 되엿다。이 計畫은 오즉 本社가 朝鮮에서 처음으로 試한것으로 産業界에 貢獻할바 클것을 確信하야 마지안는바여다。學生、商業家 斯界研究家들의 多數한 參加를 바라는所以이다。

廣告講座
(五月十六日 於本社大講堂)

規定

一、時日 五月十六日午後一時及同七時

一、場所 本社大講堂

一、題目及講師

一、未定 日本電報通信社營業部長 光永眞三

一、今日의廣告實戰 日本廣告聯盟常任理事 大阪廣告協會理事 伊東仙吉

一、新廣告의傾向 中山太陽堂廣告部長 室田庫造

一、小賣店의廣告立案 前立教大學教授 現東京百貨店協會書記長 伊藤重治郎

一、未定

一、聽講資格 商工業關係者、專門學校의商科學生

一、聽講方法 聽講은無料로함 但聽講希望者는 往復葉書로 記하야(住所氏名을 記하야) 十四日까지 本社에 到着되도록 申請하야 本社에서 承諾을 바든이에限함 (復信表面에)

一、申込處 市內太平通朝鮮日報社廣告部廣告講座係

001061

主催 朝鮮日報社

本社參觀

▲晉州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四學年生徒四十一名李秀應氏引率下本社見學

人事·集會

▲朴鳳鎭氏 (京畿道會議員)當選人事次本社來訪

▲柳完熙氏 (朝鮮中央日報記者) 五月九日龍仁郡內四面松門里鄕第에서 遭內艱

▲宋在鵬氏(京畿道會議員)當選人事次十二日來社

▲金鐘遠氏 (京城女子醫學講習所長)故金鍾勳氏葬儀參列次 十二日十一時二十分車로 京城驛發 順天에

夕刊後市況 十二日

◆朝取短期◆

	後引	高價	低價
朝取	—	—	—
同新	一三六八〇	一三七一〇	一三六八〇
鐘新	九四六〇	九七三〇	九四六〇
大新	一五〇七〇	一五三九〇	一五〇三〇
東新	八三四〇	八四二〇	八三四〇
日産	三八七〇	三八七〇	三八七〇
同新	—	四四〇〇	四四〇〇
朝石	—	一二六九〇	一二六九〇
帝人新	—	五六〇〇	五六〇〇
北樺新	五六〇〇	七三〇〇	七三〇〇
東燐新	—		

◆橫濱 生糸 後引◆ 當限八二二〇〇 先限八〇四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八一〇〇 先限 八一一〇

女子學習院教授 井上源次郎 陸軍士官學校教授 田島淸 共編

新佛和中辭典

待望의辭典 發賣!!

本書는優秀한語學辭典임인同時에 專門語辭典을兼用하는辭典으로서 文化의諸領域에亘한多數의專門語及最近外지의新語를蒐集하야總數約十萬에達하는 携帶用辭典으로는比類업는豊富한語彙를收錄하엿스며 發音의明示譯語의新鮮·的確 熟語·用例의夥多等近代辭典의모든特長을遺憾업시完備함。

新界의推薦 (無順)

第一高等學校教授 石川剛氏

井上教授는三十餘年來東京外語와女子學習院高等科에教鞭을잡고잇는 老熟한佛語學者이며 田島教授는陸軍教授로令名잇는達熟한學徒이니 만치本辭典의優秀함은疑視할餘地가업다 佛語學習者가엇는便益은참으로크다할것이다。

慶應義塾教授 井汲淸治氏

白水社는「佛語大辭典」以來연임업시佛語學習의要具를提供하고잇다 今番또「中辭典」을刊行하여서新要具를보래엿다 요새學生氣分이되야 이辭典을손에들면 이런便利하고充實하고찻거쉬운辭典이단三圓이란참사다ㅣ라고생각된다。

東京帝國大學助教授 鈴木信太郎氏

井上、田島兩教授의「新佛和中辭典」은 收錄한語彙의豊富함과專門語에關한正確한譯語에잇서훌융하다 卷末의常用略語集·表紙裏面을利用한佛蘭西及巴里의地圖 이러한細心한著意를엇서 便益을엇는學徒가적지안흘것이다。

東京外國語學校教授 增田俊雄氏

新佛和中辭典이包藏하는語數의豊富함에는編者의精進과細心함이엿보여 尊貴하고同時에原書에極力忠實하한 자최가完然한譯語이니 무롯編者의良心的努力이多大한所以이것다。

附錄 不規則動詞의變化表·常用略語集 佛蘭西地圖·巴里名所圖(二色刷)

三五判 八五〇餘頁 總羊皮裝

特價三圓 定價三圓半 送料廿五錢

專門十大家編 模範佛和大辭典 特價七·八〇 定價九圓 送六三錢

山本直文編 標音佛和辭典 特價一·八〇 定價二圓 送十九錢

丸山順太郎編 白水社 和佛辭典 特價三·五〇 定價三·八〇 送三五錢

德尾俊彦編纂 新佛和熟語辭典 特價二·五〇 定價二·八〇 送十九錢

野口洪基編 佛蘭西語 不規則動詞逆引辭典 特價二·三〇 定價二·五〇 送十九錢

滿鐵編纂 白水社 露和大辭典 原型版 特價十圓 縮刷版 特價七圓半 送料 原六五 縮七五

岩澤丙吉編 標音露和辭典 特價一·八〇 定價二圓 送十九

內容見本送呈 東京市神田區小川町三 振替東京三三二二八 白水社 出版目錄送呈

九州帝國大學助教授 佐藤通次著

獨和言林

比類업는九大特色을자랑하는劃期的獨和辭典

和辻哲郞氏評 (東京帝大教授) 語의本來의意味에서轉化에까지明示하야 語가가진含蓄을重視한點語原을指示한點等大端히조타 同意日本語의羅列뿐이요獨語自體의意義는分明치못한채잇는類의辭典에진절머리난吾人의새福音이다。

安部能成氏評 (京城帝大教授) 「獨和言林」은첫재印刷가鮮明한데다活字를新式으로쫘서보기쉬웁고 第一로譯語의根幹的인거와派生的인것을適當한順序로노앗스며 第三譯은語를選擇하야大體로必要한少數에限해잇슴이퍽조타。

田邊元氏評 (京都帝大助教授) 獨逸語의生命을산姿態그대로捕捉하야一々히言語의有機的機能을明示하야 그意味의生長發展을適確한邦語에移植한苦心努力에對하야衷心敬意를表한다 著者의深遠한言語哲學思想이實際에使用되여至便한辭典을結實한것은思想과實行의산統一이어다ㅣ나의깁버하는바다。

四六判·箱入 特製 總羊皮裝 特價四圓五〇錢 定價五圓 送料五五錢

一千八十餘頁 並製 레자布裝 特價三圓五〇錢 定價四圓 見本呈送 內容

明治座 110より 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2·05		7·00
舊日本版			
實	11·00	2·56	7·11
ュース		4·02	8·19
後篇	12·16	4·15	8·31

大人40錢 小人20錢に割引

桃花劇場 (電話 龍山 一三二三番)

◇朝鮮映畫藝術社特作品 戀愛悲話劇 아름다운犧牲 監督…金光洲氏 主演…李慶善·沈影·朴齊行·金蓮實

◇甲陽映畫社特作 時代劇 とくろ大名 監督…下村健二 主演…羅門光三郎·月岡久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話(本)五六七七番

◇五月十三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上映 단一時 밤七時半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유나이텟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에드와ㅣ드스사란드氏監督作品 空中大活劇 天國爆擊隊

主演…윌리암보이드 스텐사드레시

◇甲陽映畫社超大作連續活劇 ネオ スーパー版 次週!!消煙牧場!!사랑을차저서!! 無花果

時代劇 とくろ大名 中篇 監督…下村健二氏 主演…羅門光三郎 月岡久

◇マキノ超特作オールトーキ版 時代喜劇 歌舞伎劍法 監督…松田定治氏 主演…마도레누카쿠! 마키노

優美館 電話光三九五

◇五月十三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日은晝夜三回 一回十二時二回三時半三回七時半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파社本年度超大作全發聲日本版 大名譜 將軍새벽의死 監督…루이스마일스톤氏 主演…께리ㅣ쿠파氏

東洋劇場 電話光 二一九四

五月十二日밤부터(讀者優待二回) 朝鮮歷史劇 初日은大京公演 第一回

劇團靑春座 特別講告 悲劇 出帆前後 四幕 慾心쟁이未安하오 一幕二場

창글의춤추는怪物 突貫百萬弗

滿洲國主要都市의 產業狀況을 視察

本社主催第三回產業視察團

商工界에 人氣沸騰!

본사가조선의 산업발전을위하야 만흔희생을무릅스고 해마다 별항행사로 주최하여오는 산업시찰단(產業視察團)계획은 금년으로 제삼회를마지하게되엿는데 어번에는 「코—스」를만주국에서 지리적으로 력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와 밀접한관계가 잇슬뿐만아니라 칠십년이래 백여만우리동포가피땀을 흘려가며 개척에꾸준한노력을 하여온 신흥국 만주의 산업상태를 오는륙월칠일부터 이십오일까지 이십일동안에자세히 시찰하게되엿다함은 이미 사고로발표한바어니와 시찰지가안동(安東) 봉천(奉天)무순(撫順) 안산(鞍山) 영구(營口) 대련(大連) 려순(旅順) 신경(新京) 합이빈(哈爾濱) 길림(吉林) 룡정(龍井) 연길(延吉) 도문(圖們)등열세도시로서 만주사변이후에 일취월장 근대화하는만주국의 면모를 어모저모삿삿치 시찰할수잇게됨으로 이계획은상공계에 일본내지산업시찰게획때보다도 일층더큰충동을 일으키여 벌서부터 계획내용질문과참가신청이 답지하는상태이다 신청마감은 오월삼십일일로 응모인원이 정원삼십명을 초과할때는 추첨으로결정한다고 사고에는발표하엿스나 형편에따라신청자가정원에 달하면 어느때이고마감하고 그후의신청은 부득이사절하게되엿스니 참가할분은하루밧비 신청하기를바라는바이다

本社主催

東京大阪의 權威招聘 廣告學講座開催

五月十六日本社講堂에서 (二回)

朝鮮서는 最初의 試驗

약진조선의 상공업을위하야 본사에서는 조선에서 일즉이보지못하든 획기적 사업인광고강좌(廣告講座)를 개최하기로되엿다 정당한선전은 세상만물의존재여부와 성쇠여하를 좌우하는 실로위대한 힘을가지고잇는 일종의 무기이니 이것을보는사람 듯는사람의 머리와 마음에 빈틈업시 쏙!쏙!드러가도록하는것은 「광고술」『선전술』그것이다 최근구미각국은 물론이오 동양선진각도시의 광고술도실로놀라울만치 발달되어 여간하야 가지고는 도저히 광고니 선전이니 행세할도리가업는 현상이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멀리현해를건너 사계권위학자 또는기술자를 초빙하야 별항사고와가리 오월십륙일 오후한시와 동일곱시 두차레에 난호아 본사강당에서 조선호시의 획시기적 사업을행하야 뒤떠러진 우리상공업의 선전술을 진전향상케하자는것이니 이것이 조선상공업게에잇서서 실로막대한 공헌이 잇슬것을 일반관게방면에서는 절대자신하는모양인듯시에 그반향은 실로크고 또클모양이다

대문서사법게에는 시내아현정(阿峴町)일백이십삼번지 김용조(金鎔早)(二一)라는 가의사(假醫師)가 부잡혀왓는데 그는 시내합

장까지한다는 □□□□□의지 금령고까지 부처서 사기행사를 하든것이라고한다

닭盜賊 全北群山府에서

【群山】 전북군산부(全北群山府)에사는 김종규(金宗圭)(一七)를 수괴로하는 삼인단의 소년닭 도적때는 지난구일 부내어성정(御成町)이십구번지 량윤종(梁允鍾)의집에서 닭다섯마리를 훔처서 남대문시장에 갓다가 삼원에 팔아먹고이에 자미를부친그들은 십이일 새벽또다시 청엽정(靑葉町)에서려구혼의닭 여섯마리를 훔처가지고 남대문시장까지 와다가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엿는데 이들이닭을도적할때에는 우선닭의입을 붓들어서 소리를 내지 못하게한다음 차례차례자루속에 잡어너허가지고 도망한 것이엿섯다고한다

居昌殺人事件

【大邱】 살인 방조(殺人幇助)사건의 피고 ◇慶南居昌郡熊陽面雜材里九四九番地 愼宗守(二七) 愼宗錄(二二) 에관한 공판은 십이일오전열한시에 대구복심법원형사제이부에서 미전(米田)재판장주심 좌등(佐藤)검사관여미에 개정되엿는데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신종수에게는 징역십이년 신종록은징역이년의 판결언도가잇섯다

花柳巷의"無常"世態

妓籍變動이 頻繁

권번간의 쟁탈전이 점차심각해

"受動"券番에서는 悲鳴

근자에와서 시내세곳권번사이에 기생쟁탈전이 맹렬히전개되고잇드니 드디여 한성권번측에서 비명을 울리고잇다 십이일 시내다옥정(茶屋町)조선권번(朝鮮券番)에서 서면으로 종로서보안게에 이에대하야 진정한바가잇다는데 그내용을들으면 종래각권번사이의 기생쟁탈로 말미암아 기생들의기적(妓籍)변경이 심하고 나종에는 각권번사이에 자미업는 사태가발생될 우려가잇서서 각권번사이에 협정하야금후 기적을변경하는때에는 권번에 말하도록되여잇섯다고한다 그러나 그후여전히 기생의이동이만허지며 사월칠일이후에 조선권번의 기적을떠난 기생수가 사십칠명이나된다고한다 그러니 아프로도 이상태가 계속된다고하면 우리권번은 자멸할수밧게 업스니 당국에서 특별히 처치하여주기를 바란다는것이다 이에대하야 당국에서는 신중히고려중이나 대체로 방관적태도를가지고잇는모양인데 좌우간 근일중 각권번당국자들을 불러다가 그사정을 자세히 듯기로하엿다고한다

酌婦와同居못해 畢竟에는情死

【哈爾濱】 타오르는 정열을 못이기어 봄와 어린이들까지 남겨노코 잡부와함께 구천의길을 차저갓다는이역(異域)에서 보기 드믄정사의원로말 할이빈 도리 북시장십도가(哈爾濱道裡北市場十道街)이십사호에서 중류이상의 기성복상(旣成服商)으로 경제적 발전을보히든 박관해(朴觀海)(三○)라는사람은 당지모로리점에 작부로잇든방화선(方花仙)(二○)과 오래전부터 사랑을속삭여 오다 가 십지어든본처에게 리혼문제까지제기햇스나 나날이 갑혀가는사랑에도 본처를 해결할방도가어서든지 죽엄의 원인인엿다

스파—크소리에 乘客이落傷

십이일 오후여섯시반쯤에 경전(京電)을떠나서 동대문(東大門)으로가는 제일백오십구호차(運轉手新設町一三三의一五李孝錫(二三))가 종로이정목 십삼번지압가까히 왓슬때 마친「스파크」하는소리에 깜작놀란 시내관철정(貫鐵町)삼십삼번지 조영덕(趙永德)(三三)이가 박그로 뛰여나리여서후두골과 원편다리를 상하여서 부근박창훈병원에 입원하엿다 치료는 약삼주일가량

第五回 全朝鮮女子卓球大會
◇時日 五月二十二日午後一時
◇場所 鍾路中央基靑運動室
◇申請 (五月十九日까지 住所、氏名、所屬을 明記하야 京城府光化門通一四八朝鮮日報社로 申請할것(參加金不要))
◇主催 朝鮮女子體育奬勵會
◇後援 朝鮮日報社

흠치긴훔처냇지만…… "따이아"를玩具로誤認

手荒症들린두少年의犯罪

【平壤】 평양부내선교리(船橋里)송정전부윤(松井前府尹)의아들서선사원(西鮮社員)송정공(松井公)의집에서는 지난이일 백금팔뚝시게와 백금따이아반지 시가일천삼백원짜리를도난당햇섯는데 평양서원이 범인을엄탐중 십일아침에 선교리토막에서 살고잇는 송순관(宋順寬)(七) 김헌덕(金憲德)(七)두명을 체포하는 동시에 도난품도 발견되엿다 송,김량소년은 귀금속인백금시게와 반지를 절취하기는햇스나 그것이무엇인지아지못하기때문에 납가락지 작난감시게인줄알고 자기들이 조하하는소녀들에게 주어서그소녀들이 가지고놀고 잇는것을 발견하고범인을 체포한것이라한다

水炎치른全州府 느는것은乞人

【全州】 작년도 미증유의 풍수재해를 치른 전주부내에는 요지음 춘궁기를당하야 걸인(乞人)이 예년보다 증가하야 집집마다 조석이면 몃십명식 치르는 상태라는데 일반사회에서는 당국의 선처를 바란다고한다

京城鐵道事務所管內 事故四百六十件

昨年度는減退된傾向

경성철도사무소관내에서 소화십일년도 운전사고총건수는 사백륙십건으로서 전년에비교하면설흔아홉건이감소하엿다 이중에서 철도게원들의 책임사고는 스물일곱건으로 전년에비교하면열두건의감소를 보엿다

山火誘發의機關車에 "불똥"防止의裝置

鐵道局管下에指示

기관차에서 떠러진 불똥으로말미암아 함경선(咸鏡線)연안의 수개처에서 산불이 나서산림 수천정보와 민가수십호를 태워버리게되야그곳 피해자들은 기차에대한원성이 놉고잇는터인데 이에대하야 철도국관운전과장(管運轉課長)은말하되불똥떠러트린 기관차에는 각기관할 철도사무소에 명령하야 불똥방지장치를하도록 하엿슨즉 다시사고를낼일은 업슬것이다 그러고 다른기관차에도 주의를하도록 지시하여두엇다

근에는 기차 매연(煤煙)으로인한화재가 벌서네건이나되며 그중 가옥화재와 산림화재가 각각두건식이다 그리고 그중 신흥철도(新興鐵道)의 렬차매연으로인한것이 세건이나되는데 특히 신흥철도(新興鐵道)의 연선에는 조금도 간격이어시 곳언가 혹은 림야가잇슴으로 실로 위험성을 가지고잇스며 요지음과가튼 가문때는 그연선주민들의공포가 상상이외로 크다고하여회사당국의 적당한 방비책을 열망하고잇는중이다

百廿戶를燒失 石川縣下의大火

【金澤電話同盟】 십이일오전한시반쯤 석천현강소군 산대정역장(石川縣江沼郡山代町役場)아페잇는 광락사(光樂寺)로부터 불이 나서 때마침 남서의강풍으로말미암아 불은곳정연장에 연소되고 부근일대에까지 뻐처서 일백이십호를 전소하고 동다섯시에진화되엿다 그부근에는 산대정소학교를비롯하야 관공서가만흔곳임으로한때는매우 혼잡을이루엇스나 소방조의노력을 쳐신히진화하엿다한다

定州五山高普 卅週年記念式

十五日同校에서擧行

평북오산고등보통학교(五山高等普通學校)에서는 이번에 동교창립삼십주년을 마지하는기회를타서 오는오월십오일(토요)오후한시반부터 기념식과 삼주년근속직원 표창식을 거행한다는데 이와동시에 당일에집행될 기념행사는 다음과갓다

一、學父兄後援會 十五日午前十時
一、創立卅週年記念式及 十週年勤續職員表彰式 十五日午後一時半
一、音樂大會 十五日午後四時、八時
一、學藝品展覽會、關西學校對抗庭球大會 五月十六日
一、陸上競技大會 五月十七日 (雨天順延)

痲疹大猖獗

【咸興】 유아의 대적인 마진(痲疹)이 대창궐하야 공포에싸혀엇다 홍원경찰서로부터온 보고를보면 홍원군(洪原)일대에는 금년초부터 마진이대창궐하야 사월말까지 발생루게실로 일천사백이십칠명에 그중사망자가 엽백이십오명의다수에달한다 그리고현재 환자가 어백십구명으로 보청면(甫靑面)한면의사망자만 엽십구명이나된다 그리고 함주군에도 마진이대창궐하야 그환자루계도 천명의 다수에달하리라고하는데 일반은 이가튼 무서운마진창궐에큰공포를늣끼고잇다한다。

咸安風水害被害 廿三萬圓突破

年復年當하는災害에시달린 數萬災民生途가困難

【咸安】 경남함안은 서으로 남강 북으로 락동강이잇서 총면적의 오할이상이 수침지이다 소화구년 동십일년의 미증유의풍수해를겪고 그의창처가 낫기도전에 지난번 대풍수해를 마저서상가상으로 농작물피해액이 이십삼만이천삼백삼십팔원이라는데 각면별피해액은 다음과 가트며 팔만여의 군민중 오만을넘는 이재민은 그의생로가막연하다는데 대산면 제방공사 범수면제방공사등은 그들구제에 홍로점설에 지나지못한다 초근목피로연명하는 그들은 피와땀으로 비저낸맥작을 수마에게 일어버리고 반년이나나마잇는 가을까지 생활을 어찌나보장할까? 늙은부모와 어린처자들을 다리고무심한 창천만 바라보고 울고잇슬뿐이라한다

面別	畓浸水面積(反)	田浸水面積(反)	作物被害豫算額合計(圓)
咸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伽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郡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法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代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漆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漆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漆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山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自動車顚覆墜落

【榮州】 구일오전여덜시경에 경북풍기(慶北豐基)서 영주로오든 조철자동차 경북칠백오십일호운전수 안모(安某)가 나무고개서 약삼십척이나 되는곳에 떠러저 전복되엿다 전복되경과를들어보면 이날아츰에 승객네명을태우고 오는길에 운전수의 실수로 전복되얏는데 다행히 중상자는 업섯다고한다

配達夫假裝코 換錢橫領

시내에간혹잇는범죄

지난 십일일 오후네시쯤에 시내 청진정(淸津町)이백칠십칠번지 고산승백(古山升栢)이가 시내 무교정(武橋町)우춘관(又春館)에 냉면한그릇을 주문하여먹고 약한시간이나 되여서 나이약이십사오세가량 되여 보이는 배달비슷한자가 와서 냉면값을 달라고하기에 마침 거스름돈이 업서서 오원짜리한장을 주어서 거스름돈을 가저다주지안키에 우춘관에 니 뗏지간 거다려야 거스름돈을 가저다주지안키에 우춘관에 독촉하엿다고 한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돈바드러간일이 업다고 하야 그때야 비로소 속은줄알고 곳종로서에 알리엿다고한다 일전에도 서린정(瑞麟町)에서 이와똑가튼 피해가잇서소관종로서에서는 새로운 수단을쓰는 사기한이라고하야 그범인을 수사중이다

假醫師就縛 십이일 시내서

【咸興】 오월에 들어서 함흥부

【咸興】 박사(浦田博士) 천소박사(天沼博士)등 사계권위십명과 조선측으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大)교수를 비롯하야최남선(崔南善)소전성오(小田省吾) 씨등 여시사게 권위삼십명을합하야 약사십명이 출석할터이다

放火狂"列車煤煙"人家火災벌서四件!

【咸興】 오월에 들어서 함흥부

三都市에 改良事務所設置

京城은前建設事務所跡使用

철도국에서는 개량사무(改良事務)의 확대강화에따라서 오는륙월일일부터 경성 평양(平壤)부산(釜山)세곳에 개량사무소를신설하기로되엿는데 벌금 사무소장의 인선(人選)을 하는동이며 경성개량사무소는 우선전자경성건설사무소자리를 사용하기로되엿다한다

寒心한職工의保健

負傷者二百六十

興南工場一個月事故

【咸興】 모처에서 조사한통계를보면 지난이월이십일일부터 삼월이십일까지 일개월동안 흥남조질회사(興南朝窒會社)직공중에 질병(疾病)을가지고잇는사람 부상(負傷)한사람의수는 열천오백이십구명으로 그중전치(全治)자칠백이십륙명 사망(死亡)은두명 미치헤고자(未治解雇者)십명이된다 그주 부상자(負傷者)만 이백륙십오명 그중 전치(全治)가 일백사십일명이나되며 사망(死亡)은두명이다

名勝、古蹟保存委員會

來月第三回總會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위원회(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委員會) 제삼회총회는 오는유월구일오전열시부터 총독부제삼회의실에서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등재하에개최될터인데 동회에출석할 위원은 □□ 제국대학、 흑판박사(黑板博士) 빈전(京都帝大) 빈전

스포—츠欄

實業庭球第十日

總府·專賣各勝

專賣依然首位

京城實業庭球聯盟主催의 春季리—그戰第十日의 專賣對府廳戰(殖銀工—三)과 商銀對總督府戰(朝鮮工—三)은 十二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開始된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專賣軍이 府廳軍을、總督府軍이 商銀軍을 모다 이겻다 그리하야 專賣軍은 四戰四勝의 全勝率을 依然確保하야 首位를占하고잇다

【總府】勝 【商銀】

(第一라운드)
×(張吉福·金鍾朝) 3…4 (李正來·河村)○
×(嚴東律·金相平) 1…4 (金時浩·諸世新)○
○(金星成·廬吉斗) 4…2 (洪鍾昌·成相伯)×
○(熊野御堂·柳太龍) 4…1 (小野·朴泰和)×
×(所·森田) 2…4 (沈準燮·宋在百)○

(第二라운드)
×(金星成·廬吉斗) 2…4 (李正來·河村)○
○(熊野御堂·柳太龍) 4…1 (金時浩·諸世新)×

(第三라운드)
○(熊野御堂·柳太龍) 4…0 (沈準燮·宋在百)×

(第四라운드)
○(熊野御堂·柳太龍) 4…2 (李正來·河村)×

【專賣】勝 【府廳】

(第一라운드)
○(全泳俊·朴寅世) 4…3 (金石崇·崔秉燦)×
○(白潤輔·李正玉) 4…2 (洪□·李仁俊)×
○(黃基成·淺野) 4…0 (張南星·李鳳基)×
×(金世羽·金潤豐) 1…4 (洪承杰·金權岩)○
○(李鳳基·梁在景) 4…1 (宋貞鏞·李履得)×

(第二라운드)
×(全泳俊·朴寅世) 1…4 (洪承杰·金權岩)○

(第三라운드)
○(白潤輔·李正玉) 4…1 (洪承杰·金權岩)×
(黃基成·淺野)
(李鳳基·梁在景)

實業庭球10日現在

順位		專賣	總府	殖銀	府廳	遞信	朝鐵	商銀	比率
1	專賣	:	○		○	△	○	○	1·000
2	總府	●	:	○		○	○	○	0·800
3	殖銀		●	:	○	○		○	0·750
4	府廳	●		●	:	●	○	○	0·400
4	遞信	△	●	●	○	:	●	○	0·400
5	朝鐵	●	●		●	○	:	△	0·250
6	商銀	●	●	●	●	●	△	:	0·000

【備考】○印은勝、●印은敗 △印은日沒中止의意를表示함

朝鮮鄕土民謠大會
十七日午後七時半
於府民館
入場料五十錢
主催 朝鮮民俗學會
後援 朝鮮日報社

코、正當한治療法
코가흘리고 맥히대고
코가흘리고…맥히고…냄새가 …
正當한療法은册子 鼻病解說 을보면잘알것이다
東京市芝區南佐久間町二ノ二 破報堂藥品部
相人의殘疾비다나가코

金鎰有望한
軍手의製造
專屬製造家募集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業者에對하야 特別割引으로써 各面一名限하야 資金의補助的新規開
豊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十九番地

大奉仕特賣
御愛用家景品附
今期間中
이가리쏘—스
二合瓶一本買上時에
實用品 유리小鉢
一枚式無洩進呈
即刻下命을하시오
イカリソース

純粹小說叢書
突然半島天地를震撼하는 劃期的大出版!!
悠久五千年 廢墟가튼 我半島文化史上에 新文學의 燦然한炬火가 휫날린지 이미二十有餘年 그동안 許多한 天才的作家가 接踵輩出하야 曠野가튼 우리의文壇은 一時에 百花撩亂한 豪華舞臺로 化하엿다。이제 우리는 그數만흔 名篇佳作中에서도 가장 藝術的香氣노픈 精髓的作品 十二卷을 玆에 選擇하야써 二千萬兄弟아페 이바지하노니 兄弟들이여! 兄弟들은 이叢書를 兄弟들의 案頭에 備置함으로써 文化民族으로서의 羞恥됨이업게하라!
太陽社版 ◆ 全二十卷
凛凛한 이偉容!!
文學朝鮮의 黃金塔은
正히 이것이다
三代 廉想涉
赤道 玄鎭健
海潮音 金基鎭
人間修業 李箕永
不滅의喊聲 李泰俊
먼동이틀때 李無影
人形의집을나와서 蔡萬植
人間問題 姜敬愛
구름을잡으려고 朱耀燮
咸大勳、張赫宙、嚴興燮(交涉中)

第一回發行은李箕永氏의力作!
人間修業
熱狂的喝采裡에 絶讚의書 發賣中
世界古典文學의大雄篇『동키호—테』를凌駕할我新文學以來의 最高傑作!……
이作品은 不世出의 天才作家 民村 李箕永氏가 그在獄二年間의 기픈思索가운데서 비저내인 文字그대로의 心血을 傾注한 그의 畢生의 大作이니 그雄大한 構成美 細心的인形式的加工 및 紙背에번득이는作者의 熱烈한 正義感等을 通하야 나타난主人公「현호」의 一擧一動은 律律不熄하는 事件展開의興味性 神經을 찔으는듯한 痛快한諷刺스스로 破顔一笑치안코는 못배일豐富한 유모어와아울러 반듯이 讀者의旋風的威激을 자어내고야말것이다
朝鮮初有新四六版高級 佛蘭西式金色裝幀
定價 一圓 五百頁 送料十六錢

李泰俊純情戀愛小說集
久遠의女像
內容
아아 靑春이 아까워라 紅淚 潸潸히 滂沱하는 靑春哀話!
그대懊惱만흔 어感傷의 時節을 淸純多恨한 戀愛哀歌를 울조리는것으로 보내지 안으려는가 愛人에게보내는 初夏선물로 一千萬靑春男女아페 우리는 이한冊을감가提供한다
(五月下旬發賣)
久遠의女像 愛慾의 葛藤 코스모스피는庭園 숨은勝利 番外一篇
新四六版 定價 一圓五十錢 五百頁

新進傑作選集
內容
新綠 무르녹으려는 初夏讀書界를 斷然席捲하는 世紀의寵兒!
新文學建設의 意慾에 불타는新銳作家 十氏의 代表的名作展 各篇에 溜溢한 그淸新한感覺과 各傑各色의 眩風한作風은 반드시 滿天下의 讀書子를 魅了하고야말것이다
(五月中旬發賣)
激浪(玄卿駿) 靑(李基煥) 村先生(李光來) 비오는길(崔明翊) 巫女圖(金東里) 황소(崔仁俊) 생호래비(朴榮濬) 轉落(車自鳴) 개(李雲谷) 喪妻記(鄭飛石)
四六版 定價 一圓 三百頁

月刊 文化界 一輯
重要目次 創刊辭…出版界現狀… 現代와教養… 齊冊이즘世界文化動向…世界出版動向…叢書刊行에…人間修業에…作家의一家言…春愁(小說)…其他隨筆消息 寸評等滿載 定價五錢

廉想涉作
三代
第二回發行
(六月初旬發賣)

發行所 太陽社
京城府堅志町一一○番地
電話光化門九七一一番 振替京城二一七二二一番

京城版

東部出張所落成式 오는십오일에

이미 준공되어 사무를보고잇는 신설정(新設町)경성부동부출장소(東部出張所)의 락성식은오는십오일오전십일시에 거행될터이라한다

法外保證金要求하는 惡德家主를團束
住宅難을奇貨로一年分以上도要求
警察은福德房과連絡

경성부내에는 작구 인구가 팽창하여가고 주택은 귀해저서 말집은 만흐나 셋집은 구하기어려운 형편인데 이기회를 엿보아서 집을 세놋는 집주인들은 너무도 가혹한 조건을 부처서 차가인(借家人)들을 울리고잇는 사실이 만타한다 더욱이 심한것은 보증금제도로 종래에는보통 집세에대한 이개월분 혹은 삼개월분을 바덧는데 요지음에는 십개월 혹은 일년분을밧고 서집세는선금을 밧고잇는형편이므로종로경찰서보안계에서는 이러한악덕가주(惡德家主)는 단연히 응징할 방법을강구하는 동시에 가옥대차(貸借)를 소개하는 복덕방(福德房)영업자를 엄중히단속하야 그와가튼 과도한조건을 부치는 집주인의 집세를 노아달라는 부탁이 엿슬때는 소개를하기전에 경찰서에 신고라도하게할 방침을 쓰게될터이라한다

仁川署狂犬豫防注射

봄으로부터 가을에일으기까지상춘객과 해수욕객을 끄을사이업는만큼 월미도의통행인은 점점격증되어가고잇다 이와한가지위협을늣기는것은 광견병으로 지난일일 「세파드」종의광견이 남대문소학교학생을 교상한사건을비롯하야 이와가튼사고가 빈빈함으로 광견방지책으로 오는십삼일오후일시부터 인천서에서 맹견예방주사를 시행하리라한다

男女紳士賭博打盡

시내 청진정(淸進町)삼십일번지 조경태(趙慶泰)의 집에서 마작도박하고잇는 시내관훈정(寬勳町)일백십팔번지의 십오호 광업박승설(朴勝說)(三)청진정(淸進町)사십이번지의 일본기생 강계월(姜桂月)(三)의 세사람의 남녀신사도박군을 종로서원이 그서에 인치하엿다

營利的引入은 水道課서不許
水道管引入申請의一例

성북정(城北町)에는 해마다겨울이되면 먹을물이 업서서 곤난을 당하는터인데 답답한사람이 우물을판다는격으로 그동리사는 모재산가는 얼마전에 경성부수도과(水道課)에 차저와서 수도관(水道管)가설비 이천오백원을 자담할터이니 자기집까지 수도를 노아달라고 신청하엿다 그래서 수도과에서는 금년부터 성북정에도 수도를노키는하지마는 초입부일부분박게 드러가지 못하게 되여잇스므로 개인의힘으로 이와가티경비를 부담하야 수도를 연장시키고저하는것은매우 조흔일이라고 생각하고 과원이 실지에가서 조사해본결과 그의사는부락에는 인가가만하서 그수도만끄을게되면 다른가튼동리사람들로부터 비용을따로따로 분담시켜서그가설비를 제하고도 도로혀돈이남게되도록예산을 세우고자기집수도는 그틈에가설하게될 「플랜」을 세웟슴을 알게되여수도과에서는 공영의 수도를 리용하야 헐안드는 리익을 보려는 이신청에 대해서는 용허할수업다하야 퇴각시켜버릴일이 잇다한다

出漁期臨迫하야 漁村의刺身魔
仁川署에서嚴重取締

【仁川】지난팔일 인천서에서는 서곶면근방에서『모르히네』중독자를 인치하고 방금엄중취조중이어니와 그는 부천군덕적면승봉리(富川郡德積面昇鳳里)한진섭(韓鎭燮)(三)으로서 얼마전부터 전호수회를통하야 전기공원구내에서 모르히네밀매를 할뿐아니라 이를또 덕적대부등 어촌으로보내엿다한다 이제 그의중독된경위를듯건대 치운겨울과 폭풍우나리는 밤에 출어(出漁)를가게되우하야 내한제(耐寒劑)로쓴것이 결국중독이되고말은것으로 그외에도 해상에서 급작어토사광란이 일어날때면 전기마약으로 진정을식힘으로 일반어촌에는 그중독자가 날로증가될뿐이라하야 인천서위생계에서는 철저박멸할계획으로엄중 단속을하고잇다한다

開城名物觀燈노리 盛況을豫期
十六日부터三日間

【開城】석가탄생일인「사월팔일」을 개성에는 제일가는 대중행락의 명절날이다 시가지전부를 장식하고잇는데 봉축종목은 다음과갓다한다 꼿밧을 이루는 현란한이밤은 금년은 십륙일부터 십팔일까지 삼일동안 례년보다 더굉장히 거행할터이라하야 방금 개성회재봉찬회(開城花祭奉讚會)에서는 각종준비에분망중이고 근방각촌에서는 무려삼만명의 구경군이 집중될것으로이날의 인끼는 벌서부터 물

五月十六日(陰四月七日)
▲佛教講演會、▲觀燈、▲南大門電燈裝飾▲煙火

五月十七日
▲줄다기▲全鮮弓術大會▲씨름▲奉佛會式典▲奉祝演藝會▲野外活動寫眞▲落火▲白象行進▲觀燈(全市裝飾)

五月十八日
▲前日과 同樣

前年同期보다 三千餘名激增
四月中府立圖書館讀書子

경성부립도서관에서 사월한달동안에 도서를 열람한사람의 총수는 사만일천오명으로 작년사월에 비하면 삼천구백오십오명이 더만엇다한다 이가운데서
▲화생은 일만오천팔백구십칠명
▲무직자는 구천사백팔십칠명
▲잡업(雜業)은 삼천일백 오십칠명
▲관리와 군인은 어천 팔백구십이명
▲아동은 이천일백팔십명
▲은행회사원은 일천팔백사십명
▲기자 교원 종교가는 일천칠백륙명
▲직공(職工)도제(徒弟)는 일천이백사십명이엇는데 역시학생이수위를 점령하엿다

人面獸心의 處女賣喫犯

철조차 안든 처녀를 꾀이여 서수욕을 채운나머지 연유시장에 파라먹고 그죄악이 발각될가 두려워서 그의친권자를협박한인면수심가튼악독한 사나히가잇다 시내 종로서원이 경남 마산(馬山)출생 현주소가 일정치못한 양복직공 김점수(金點守)(三)를 그서에 인치하고 취조하엿더니 이자는 시내 남대문통(南大門通)사정목 십일번지관형호(寬兄號)양복점에 근무중작년 십이월 중순부터 그곳견습직공 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 십번지의 어십이호 리병석(李丙石)의 큰딸 명화(明花)(三)에게 만일내말을 안드르면 때려죽인다고 협박폭행하여서 수차강제적으로 관계를 매저왓다고한다 그리다가 그달이십삼일에 또 명화를 차저와서 내가삼백원의 빗을 지고 작부생활을 시작하면 그돈으로 양복점을 하여서 빗을 가퍼준후 부부생활을 하자고 하기에 명화도처음에는 마음업는 이야기라 완강히 거절하엿스나 죽여버린다 때려다는 위협에 그만겁을먹고 그래케하겟다고 대답한후 그와함께 가만히 집을떠나낫다고한다 그러고는 그길로 시내 황금정(黃金町)삼정목이백칠십칠번지 인사소개업하는 김귀룡(金貴龍)의 주선으로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륙백사십삼번지 음식점리춘삼(李春三)의집에서 삼백원의 빗을놋고 나어린작부생활을시작하엿다 그후 금년정월이십팔일 시내창신정(昌信町)사백사십삼번지 박원배(朴元培)의집에 몸붓치기고 잇다는데 그동안 그의집에서는 갑작가려 업서진 명화를 차즈려고 시내 각서에수사원을드리는동시 일변 행방이 수상하야 ...피인것이아닌가 서에 의뢰하여 ...아스나 이자가 ...나머지 중개가 ...수일후에 고만 서방된그는 곳 ...를 차저가서 ...후 또다시 나 ...때에는 너의일 ...살한다고 협박 ...감추려고 애써 ...의 몸값 삼백 ...나히의주색생활 ...다고한다

最年高妓는四十二歲 不成績은月二時
妓生營業에種種相

종로경찰서 보안계에서는 오월십일현재로 그관내의 기생영업자의 년령및영업상황을 조사하야 방금서류를 작성중인데나이제일 만흔기생은 마흔두살이나되엿사람도 잇고 영업시간이제일 적은 기생은 한달에겨우두시간밧게 료리집에 불려가지못한 사람도 엇다한다 이런기생은 대개수양녀(收養女)의 버는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여가는터인데 수양녀로 기생영업허가를 신청하는자는 여러가지 조치못한폐단이생기므로 어쩌부터는 허가하지안홀방침을 정하엿다한다

開城蝀龍麗探勝
會費增加、女子拒絕

【開城】기보=고려시보사(高麗時報社)주최와 본사개성지국 후원으로 동룡굴탐승회(蝀龍窟探勝)을 오는십륙일까지 모집한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최초회비를십확원으로 혜든것이나 철도임금할인상과 자동차비 무할인으로 부득이이원을 증가하야 십팔원으로되엿다하며 단원은남자에만 한한다고한다

自轉車電車衝突

인도교중지도(中之島)정류장아페 한강서 시흥군수암면거모리(始興郡秀岩面去毛里)에 사는신화상 리학만(李學萬)(三)이가자전거를타고 진행중의 경(京)일배신호 전차에 충돌되여 오른편과 어깨에부상을 입고 곳설도병원에거서 응급수당을 밧엇다는데 전치까지에는 입주일이걸리겟다고한다

年收入五萬圓以上 市內서六十六名
十萬圓以上은十四名

금변도 경성부호별세부과(戶別稅賦課)에나타난 부민의 부력(富力)을보면
▲일년수입 십만원이상 여십어만원까지되는사람은 열네명이고 일본내지인은 네명이며
▲일년수입 오만원이상구만오천원까지 되는사람은 오십이명으로그가운데서 조선사람은 십이명 일본내지인은사십구명 외국인이 한명이다
이것을 보아서 대경성이라고소리를 노아치고잇지마는 비교적부자가 만지못한것을 알수잇게되다한다

第七回中等學校及俱樂部 籠球聯盟戰 ⑥
中等B級에大東優勝
培材、儆新、漢商各勝

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七回中等學校及俱樂部籠球聯盟戰第六日은 十二日午後四時부터 鐘路基督靑年會庭코ー트에서 擧行한바 어제漢商이 普成을 물리치고 依然培材가 靑學을 이겨 中東과 함께 第一位에잇다 그리고 儆新이 中央을이겻스며 中等部B級의 覇權을 左右할 大東對協實戰은 大東이勝捷하야首位를 차지하엿다 이리하야 同盟戰도 前半期를 지나서 後半期에 드러스게되여 漸次佳境에 드러가고잇다

【第一次戰】漢城商業對普成高普戰은 同午後四時부터 金振秀、李惠溥兩氏審判아래開始한바結局 四十一對廿五로漢商이勝利하엿다

漢商 41 (28 13 / 12 13) 25 普成

反	得	【漢商】		【普成】	得	反
0	16	金東赫	F	白相敎	8	0
0	8	李鉉義	F	崔完衡	3	0
			F	白現	4	0
0	7	金達永	C	黃河雲	8	2
0	8	馬理述	G	劉在烈	2	2
3	2	白明滋	G	林順穆	0	2
3	41				25	6

【第二次戰】培材高普對靑學戰은 同午後四時五十分부터李惠溥、文錫寓兩氏審判아래開始된바 結局四十八對二十一로培材勝捷하엿다

培材 48 (25 23 / 14 7) 21 靑學

反	得	【培材】		【靑學】	得	反
1	18	徐永錫	F	金顯國	11	2
0	2	李廷九	F	李大然	0	2
1	11	張元國	C	金壽昌	0	2
2	4	梁聖春	G	崔熙錫	4	0
0	13	宋永昌	G	姜允鎬	6	1
4	48				21	7

【第三次戰】儆新對中央高普戰은 同午後五時四十一分부터 李文鎬、金容武兩氏審判아래開始된바結局 三十二對二十六으로儆新이이겻다

儆新 32 (13 19 / 21 5) 26 中央

反	得	【儆新】		【中央】	得	反
1	8	鄭國樞	F	吳西永	0	2
3	6	兪弘濬	F	二漢	0	0
			F	鄭榮順	15	0
0	5	黃材三	C	李祖永	8	2
1	11	金判祐	G	安德模	1	3
2	2	張元一	G	金泉瑞	2	1
7	32				26	8

【第四次戰】大東商業對協實戰은 午後五時四十一分부터 林東洙、田盛鎬兩氏審判下에開始된바 結局廿二對十四로大東이 이겨서B級에서無難히優勝權을獲得하엿다

大東 22 (12 10 / 6 8) 14 協實

反	得	【大東】		【協實】	得	反
2	0	林順華	F	柳晉愚	6	0
4	1	尹興吉	F	尹忠獻	6	1
0	0	趙承伊	F			
6	0	金景泰	C	金完錫	0	0
4	0	李玉源	G	崔毅喆	0	0
6	0	尹經燮	G	李麟鎬	2	0
22	1				14	1

第六日現在

【中學部A級】

順位		試	勝	敗	比率
1	中東	2	2	0	1.000
1	培材	2	2	0	1.000
2	養正	3	2	1	0.667
3	徽文	3	1	2	0.333
4	靑學	4	0	4	0.000

【中學部B級】

順位		試	勝	敗	比率
1	大東	5	5	0	1.000
2	儆新	4	3	1	0.750
3	協實	3	2	1	0.667
4	漢商	3	1	2	0.333
5	中央	3	0	3	0.000
5	普成	4	0	4	0.000

【俱樂部】

順位		試	勝	敗	比率
1	延專	2	2	0	1.000
1	普專	1	1	0	1.000
2	高麗	3	1	2	0.333
2	南自	1	0	1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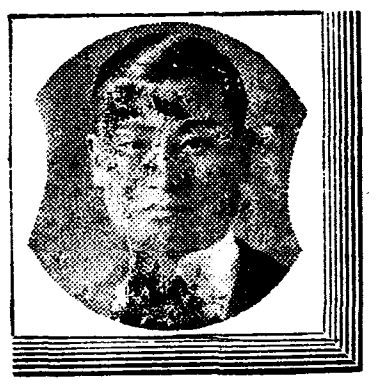
今日의運動

▲籠球=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七回中等學校及俱樂部籠球聯盟戰第七日 中學部養正(午後四時五十分) 俱樂部漢商對中央(午後四時) 培材對南大門自動車學校對普專(午後五時四十分) 以上全部鐘路靑年會後庭코ー트(觀覽無料)
▲庭球=京城實業庭球聯盟主催、春季리ー그第十一日 朝鐵對殖銀午後四時五十分 朝銀코ー트(觀覽無料)

今日의푸로

第七回籠球聯盟戰【第七日】
中等部=漢商:中央(四時)
培材:養正(四時五十分)
俱樂部=南自:普專(五時四十分)
鍾路中央基靑後庭코ー트(入場料十錢均一)
本社後援

待望의레너ー 李寅善獨唱會


伴奏 金元福女史

場所 府民舘大講堂
日時 五月二十日午後八時
入場料 一圓、二圓
平壤、大邱 公演은 五月下旬豫定(詳細追後發表)
主催 朝鮮日報社

藥御問屋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電話本局 四〇九・一〇六八 四〇九・四三四八 振替京城一六一番

耳 人工鼓膜 鼓膜破裂『귀질알는사람은念慮無用』으로 即席에서드를수잇고 外部에드러나지안는다 法이잇고(詳細는照會) 實驗者에게는 大阪北區堂島中通二ノ一二 サンセイ商會

◇アルミ鑄定二ハ次排・渦漑◇ ダドカ發動機と ちくのゐ式ポンプ 合資會社 泰明商會京城出張所 京城府黃金町一丁目 電話本局(2)3301番・振替口座京城5503番

好職業 失敗없는 本業 ...

スポーツ用品と服裝 京城壽松町 大京スポーツ商會 電光二五八二番 振替京城二五八七番 カタログ進呈 要送料三錢

頭痛에 齒痛과 頭痛에 は→[印]効散 効力이速하다고評判 名聲이높은[印]効散은 神經痛에도퍽조타고 어느藥房에서든지만히팔리고잇다 『말로보다한번 試用하시오』 本舖 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淸血排毒特効藥 海草精 ホルモン醫化學硏究所

當選謝禮

今般平南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當選의榮을得하옵은純全히有權者諸賢에深厚하신同情으로思하옵고敢히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五月十日
平南平原郡 崔正洙

當選謝禮

不肖今回 慶北道道會議員立候補之際에各位의深厚한援助로 當選의光榮을蒙하옵고紙上으로 感謝를表하나이다
(善山郡) 愼重基

選當廣告

不肖今般慶北道會議員에立候補하엿든바各位의深甚한援助를蒙하와榮譽의當選을得하은바로鳴謝不己압기玆에紙上으로써謝意를表하나이다
昭和十二年五月十一日
榮州 朴勝佑

當選謝禮

黃海道會議員(邑部)九票
昭和十二年五月十一日
松本利雄氏 會社員
沙里院無盡會社社長
代表 小野寺長藏

當選謝禮

今般全南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과地方各方面人士諸賢의熱烈하신支援으로敢히當選의榮을蒙하엿삽기 玆에紙上을通하야 深甚히謝意를謹表함
昭和十二年五月十日
全南道會議員
求禮 高在涓

當選謝禮

今般平安北道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 本人이當選의榮을得하얏삽기玆而紙上으로써謝意를表하나이다 有權者諸位와有志諸賢의深厚하신同情으로
昭和十二年五月十日
平北龍川郡 李炯觀

謹告

今番本道議員改選에際하야諸位의同情과後援으로當選의榮을得하얏삽기不肖其謝意를삼가紙上으로써表하나이다
昭和十二年五月 日
咸鏡南道安邊郡
安邊郡有志及有權者諸位 李鴻基白

當選謝禮

拜啓時下初夏에
尊體益益萬康하심을祝하오며就伏白 小生은今般駑才淺識으로서面協議員諸位의愛護를蒙하와道會議員當選의榮을得하옵은 衷心으로 感謝하는바이오며 今後도 倍前의指導와鞭韃을賜하시기를伏望하나이다
昭和十二年五月十一日
咸州郡 任復淳

當選謝禮

今般全北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 不肖가當選의榮譽를得하와 責任의重大性을感함과同時에有權者諸賢의厚意에對하야 絕對謝意를表하나이다
昭和十二年五月十一日
益山郡 趙海英

當選謝禮

今般平安北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 義州郡內有權者諸氏와 一般有志의深厚한愛護와熱烈한同情으로當選의 光榮을蒙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謹히謝意를表하나이다
昭和十二年五月 日
義州郡古津面 趙尙鎬

當選謝禮

今般江原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와有志諸賢의深厚하신同情으로不肖가當選의榮을得하엿사옵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昭和十二年五月十一日
江原道平康郡平康邑 朴河龍

當選謝禮

善山郡舞乙面協議員 金轍東
善山郡舞乙面協議員 鄭東華
善山郡龜尾面協議員 朴喜穆
善山郡龜尾面協議員 金敎稷

當選謝禮

今般全北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 不肖가當選의榮譽를得하와責任의重大性을感함과 同時에有權者諸賢의 厚意에對하야 絕對謝意를 表하나이다
昭和十二年五月十一日
益山郡 蘇鎭文

001082

産業

咸北道産業의 跛行的發展憂慮

耕種農法만으로는農村은零落

有畜農業의奬勵注目

【羅南】咸北道는 地理的、氣象的으로 特殊事情下에잇서서 栽培農業에 對한 天惠的條件이 薄弱하야 耕種農法에依한 生産價値가 甚히缺乏함으로 營農組織에 根本的改革업시는 近代化過程의 農村生活이 根本的으로零落할 運命에處하야잇다

玆에 道當局에서는 營農組織의 變革을 圖謀하기爲한 所謂有畜農業의 經營奬勵에 着眼하고 家畜、家禽의 飼育奬勵化를 計劃實行中으로 그實績如何가크다란 關心事가되어잇다 昨年中의 實行成績을보면 一郡에 五戶式 十一郡에 五十五戶의 所謂 指導農家를 選定하야 此等農家에 鷄十首와 豚二頭式의配付를 마치고 이로하야금 營農改善의 標準을 만들고잇다 當局의 如上한 方針은 勿論咸北道農村의 特色에 鑑하야 妥當한 着眼으로今後政策實行의實効가 크게 期待되고 잇거니와 前揭한 農業自體의 收支採算이 맛지안는데다가 다시 近年에急「템포」로 飛躍的發展을보고잇는 北朝鮮一帶의 他諸部門의 發達에따라 原始農村의 跛行性은寸時를 傍觀키 不能한 慘狀을演出하고잇다

따라서 當局의 方針도 조호나 如斯한 緩慢한 措處로 能히 目的達成에 至하게될는지자못 疑問視되고잇서서 奬勵의任에當한 道當局의 積極的努力과아울러 一般農家의 一○에따르는努力이 緊要事로 되어잇다

養豚戶數比率 咸北이 朝鮮第一

十戶當飼育十三頭半

【羅南】農家의在來飼育畜産物中第一重要한것의 하나는養豚인바 咸北道는 養豚에適合한 諸條件이 具備되어 近來逐年增進되고잇서 農家戶數對 飼育戶數의比率은 全朝鮮中最高位를 占하게되엇다 即昭和六年現在와 昭和十年末現在의 數字를 對比하면

	昭和六年	同十年
飼育數	[illegible]	[illegible]
飼育戶數	[illegible]	[illegible]
農家戶數	[illegible]	[illegible]
農家對飼育戶數比率	[illegible]	[illegible]
農家十戶當飼育數	[illegible]	[illegible]

飼育頭數는 多少減下의 形勢에잇스나 그內容에잇서서는 質的으로 向上을보이고잇슴으로 指導奬勵如何로는農家經濟에 相當한 收益이잇슬것으로보인다

畜産擴充計畫

各道農務課長會議의 畜産關係協議事項

各道農務課長會議에서協議

協議事項

一、有畜農業의普及徹底에關한件

一、朝鮮牛의 增殖計畫樹立에關한件

一、緬羊奬勵擴充計畫의 實施에關한件

一、朝鮮馬政第一期計畫의 實施에關한件

等인바 家畜(朝鮮牛)取引의合理化와 需給圓滑을圖키爲하야 家畜市場令을 制定하기로되어 同令制定에對하야서도 意見을聽取協議할터이다

黃海道畜牛旺盛

飼育戶數十二萬七千餘戶에 頭數十四萬三千餘頭

【海州】黃海道當局에서는 最近數年來 畜牛增産計畫을 樹立하야가지고 그計畫미테 積極的으로 畜牛를 奬勵中으로 畜牛와飼育戶數는 逐年增加를 示하고잇다 黃海道農務課集計에依하면 昭和十一年末 現在로 畜牛飼育戶數는 十二萬七千六十戶이며 그農家에서 飼育하는 牛頭數는 十四萬三千二百八十八頭로서 前年度統計에 比하면 畜牛는 一千七百十五頭가 增加되엇스며 飼育戶數는 一千七百八十戶의 激增을示하고잇는데 이를各郡別로보면 다음과갓다

郡名	畜牛頭數	飼育戶數
海州	[illegible]	[illegible]
延白	[illegible]	[illegible]
金川	[illegible]	[illegible]
平山	[illegible]	[illegible]
新溪	[illegible]	[illegible]
甕津	[illegible]	[illegible]
長淵	[illegible]	[illegible]
松禾	[illegible]	[illegible]
殷栗	[illegible]	[illegible]
安岳	[illegible]	[illegible]
信川	[illegible]	[illegible]
載寧	[illegible]	[illegible]
黃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瑞興	[illegible]	[illegible]
遂安	[illegible]	[illegible]
谷山	[illegible]	[illegible]
計	一四三、二八八	一二七、〇六〇

中國麻布 輸入大激增

朝鮮의 中國麻布輸入은 人絹과 麻布代用品의 壓迫에依하야逐年減少되고잇는바 今年은 同品의 關稅率引上의 소리가놉고게다가 先高豫想의 投機로 連續的輸入增加를 보게되엇다 即今年四月末의 輸入高는昨年의總輸入高의 百四十七萬二千九百七圓에 接近하야 百十二萬九千八百八圓에 達하야 稀有의 旺盛을極하고 昨年同期에比하면 六十九萬四百十五圓의 激增을示하얏다 一月以降의 輸入狀況은 如左하다

(單位圓)

	今年	增
一月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計	一、一二九、八〇八	六九〇、四一五

硫安品切의 狀態

資本家에게 飜弄되는農民

新肥料年度公定價格如何

當局은無爲無策의窮地

生産、配給、價格에까지 國家的統制를하야 業界의圓滿한 發達을前提로 農家의消費者를擁護하야 農業乃至는 農民經濟의 健全을保持할것이 約束된 重要肥料의統制—即硫安肥料의 公定價格은三圓四十錢으로 發表하얏스나 이는 製造業者로부터 配給商人에게만 限定되엇고 市勢는何等統制의餘力이못미처 그後날로昂騰해온市勢는 昨今阪神地方은 四圓十五錢 七月限은 四圓廿錢 五、六、七月限은 品切로 唱하고잇고 朝鮮은 三圓九十五錢에 五、六、七月限은 品切로 「賣止」의商勢에잇는等 아직도一路昂騰의氣運이强하다 이가티하야그間 春肥로目前에需要되는 水田用肥는 配給商人에게까지는配給이 大體完了되엇모양이나 農家에서는 方今購入期에入하야 豫想外로 爆騰한市勢로 莫大한打擊을밧고잇다 이原因은 公定價決定의時期가 遲延된그우에需給推算이 製造業者本位로되여잇서서結局品薄에依한 市價引上이어 製造業者의 終局의目標가 되는때문으로 이물것인데 現在 市場이 어느곳이나 品切狀態에잇는以上 市價의昂騰을 抑制할 道理도업서서 農林、商工省側이며 總督府側으로도、待望의 統制法令을 實施는하고도 無爲無策의 窮地에陷하야 結局、農民大衆은 資本家에飜弄되고잇서서 그不平은놉다 이問題가 七月부터 박귀는 新肥料今年度의 新規公定價決定에 一般物價高問題와 아울러 어떠케反映될는지 極히注目되고잇다

龍岡郡서鷄卵 出荷組合設立

【鎭南浦】龍岡郡農會에서는 農家의 副業을 奬勵코저 鷄卵出荷組合을 組織하고 各農家에서 生産되는 鷄卵을 널리 宣傳販賣키로되엿다는바 鎭南浦碑石里市場入口에 共同販賣所를 設置한後 五月十日부터 營業을 開始하고 嚴密한 檢査에 依하야至極히 新鮮한 優良을配給키로되엇다고한다

▲果實 苹果及 梨等의 十二日 京城市況을보면 端境期의 品薄으로 堅調를 示하고잇스며 夏蜜柑은 賣行이 良好하야 入荷多量으로 軟調를보이고잇다

▲菜蔬 十二日 京城市內의 蔬菜市況을보면 新甘藷、甘藷、新馬鈴薯、고사리、早生午 豌豆는 出廻가 漸減傾向인데 一般的으로 賣行이 良好하야 時勢는 高調되엇다 筍은 採取終了期임으로 賣行이 頗良하야 一齊히 昂騰되엇다 價를 示하고잇다。新出廻로는 九州産馬鈴薯、早生午、玉葱、朝鮮産豌豆等인데 모다 新出廻를보만큼 時勢도 强調를 示하고잇다

▲鷄卵 鷄卵은 目下 需要期에 各地에서 出廻가 旺盛하나 産卵率의良好로 專門養鷄場及 地方副業養鷄卵의入荷가 豐富하야 十二日 京城時勢를보면 大體 前週와 不變狀態이다

◇菜蔬類

고구마	一貫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馬鈴薯白	同	[illegible]
人參	同	[illegible]
蓮根	同	[illegible]
牛蒡 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수박		[illegible]
日本胡瓜	百個	[illegible]
茄子	同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시금치	同	[illegible]
쑥갓	同	[illegible]
南瓜	本箱	[illegible]
玉葱	十二貫	[illegible]
靑葱	一貫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果實類

苹果(國光)	四貫	[illegible]
同 倭錦	同	[illegible]
同 紅玉	同	[illegible]
梨(晩三吉)	[illegible]	[illegible]
同(今村秋)	同	[illegible]
同(早生赤)	同	[illegible]
夏蜜柑	十貫	[illegible]
바나나	五貫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잣	一石	[illegible]
실백	一斗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銀杏	一斗	[illegible]
고추	百斤	[illegible]
고추가루	同	[illegible]
실고추	同	[illegible]
大棗	百斤	[illegible]
乾蓮根	一斗	[illegible]
生落花生	百斤	[illegible]

◇家畜飼料

蠶繭乾白	十貫	[illegible]
成鷄用練餌	五斗	[illegible]
育雛用	同	[illegible]
中雛用	同	[illegible]
幼虫用粉	一貫	[illegible]
麩	百斤	[illegible]
玉蜀黍碎	九十斤	[illegible]
同 中割	同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高粱碎	同	[illegible]
同	同	[illegible]
魚粉メ粕	九十斤	[illegible]
糀	八五斤	[illegible]
鑛殼	百二十斤	[illegible]

◇養鷄用鐵網

四尺幅	二寸目百斤	[illegible]
同	一寸半同	[illegible]
同	一寸目同	[illegible]
三尺幅	二寸目同	[illegible]
同	一寸半同	[illegible]
同	一寸目同	[illegible]
同	五分目同	[illegible]

◇毛皮類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匁	[illegible]
同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梳毛	同	[illegible]
펠트	同	[illegible]

◇川魚類

잉어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자라	同	[illegible]
蜆貝	一升	[illegible]

◇家畜類

鷄	百個	[illegible]
同 卵	一貫	[illegible]
生鷄	同	[illegible]
生豚	同	[illegible]
生兎	同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鷄卵	同	[illegible]
蜂蜜	一罐	[illegible]

◇其他副業品

麥稈眞田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莞柳	一貫	[illegible]
杞	同	[illegible]
漆	同	[illegible]
胡麻油	一罐	[illegible]

【朝鮮副業協會調査】

德源山間地帶의 養蜂逐年大躍進

【元山】德源山間地帶副業으로서 將來注目과 發展性을 多分히가진 養蜂의業績은 躍進의一路를 것고잇는데 지난昭和十一年度德源郡管內、豐下兩面에서 生産한蜂蜜은 二千七百八十六瓩여, 그價格은 二千七百八十六圓이고 製蠟은 五百三十四瓩에 六百七十六圓이다 이것을 前年同期에比하면 蜂蜜에잇서 百三十瓩에百四十圓이增加하얏고 製蠟은百二十一瓩、三百四十七圓의 激增으로 德源山間地帶의 副業으로大端히 有望함을 窺知할수잇다

漁大津漁港浚渫 年度內로完了

漁郡의躍進可期

【淸津】漁郡漁大津港의 漁港浚渫은 ... 生命線으로 그實施가 遂行키를 要望中이든바 關係當局에서도이를 認定하고 秋田技手를 派遣하야 實地를 實測시키고잇서 二期浚渫工事로 年度末까지는懸案의漁港浚渫工事가 完了할것이라한다 漁大津住民全般의 ...

慶北東岸海 漁獲高十萬圓

比昨年三萬圓減

【大邱】慶北道內에잇서 三月中의 總漁獲高는 十萬二千二百十七圓으로 前月에 比하야 一萬七千四百五十二圓의 減收라하며 昨年同期에 比하면 勿驚 三萬六千餘圓의 大減收라한다

九州小麥買付殺到

【下關電話商通】九州小麥買付는 日淸、日粉을비롯하야 大阪增田等의 各社에亘하고잇는데 今年은特히 買付殺到가豫想된다 即朝鮮의 製粉能力은 顯著히擴大되야 昨年과 比較하야도 二千바-렐以上의 增加임으로 朝鮮小麥의 增産을 五十萬俵로보아도 五十萬俵의 買付增은 必須이며 九州內에서도 目下 工事中의 日本製粉熊本工場(能力一千바-렐)이 잇스므로 此等의 所要原料로서 五十萬俵를 買付하는 境遇에는 結局 百萬俵의 買付增加를 未免하게되리라한다 이에 對하야 全販聯은 昨年以上의 統制强化를 企圖하고잇스므로 今年의 小麥買付는 豫想外의 殺到를 보게되리라한다

長篇小說

어머니 【36】

李箕永 作 / 鄭玄雄 畫

第一、靑孀篇

지나온발자최(九)

아까부터 길까에 핀 꼬츨 꺽거쥐며 오든 덕근이는 또 저만큼 산골작이속에 붓꼬치 자주빗으로 탐스럽게 핀것을 발견하고 조처간다

『어머니 이붓꼬춤 바아! 퍽 꼽지안우?』

그는 한다름에 붓꼬츨 꺽거가지고와서 그것을 모친에게 처들어보이며 조아한다。

『참、곱다 뭘할나구 꽃은 그러케 꺽니?』

인숙은 탐스러운 꼿이 무참하게 꺽긴것을 잠간 애처러운듯이 바라보며 뭇는다。

『아버지 산소에 갓다 꼬지까?』

『그러람!』

인숙이는 시름업시 대답하고 나직이 한숨을 지엿다

『어머니、아버지는 왜 죽엇다우?』

덕근이는 한참 가다가、별안간 이런말을무르며 모친을 이상스레 처다본다。

『죽엇다우가 뭐냐? 도라가섯다구하지!』

『참 왜 도라가섯다우?』

『왜 도라가―병환으로 도라가섯지。』

『어머니! 병들면 다 죽는다우?』

『다 죽긴 웨―안죽는 사람도 잇지』

『그럼 왜 아버지만 도라가섯다우?』

『아이구、그걸누가 아늬……』

덕근이는 또한참울것갓다가

『어머니 성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업다구 성경에 그랫지?』

『그러탄다、건 왜뭇늬?』

『어머니、난 이담에 크거든의원이 될나우』

『의원은 돼서뭘 하게!』

인숙은 아들의 잔소리도 듯기실혀서 고만핀잔을 주랴다가 그가 무슨말을 하랴는지 호기심이나서 그대로 말대구를 해주엇다。

『의원이 되여서 병든 사람을 고처주지!』

『……………』

인숙은 별안간 그말에 가슴이 찌르르하엿다。 그는 이말이 대수롭지안흔데 불구하고、어쩐지 흉중을 억색하게하는 것이 잇섯다。

『어머니……저! 할머니가 그러시는데、아버지가 아르실때에는、양약도 못써보앗다지! 정말로그랫수?』

덕근이는 다시 의아하는 표정으로 모친을 쏘아본다。

『웨 못쓰기는……』

인숙이는 갑작이 말문이 콱 막혓다。

사실 그때 남편이 장감(장질부사)으로 아를때는 한약만써 보앗다。 칠앗산골에는 지금도 의사(醫師)가 업다。 거기에서 삼십리나 되는 읍내를 나와야 의전(醫專)출신이 개업한 병원이 잇섯스나、완고로 유명한 전화자는、병원약은 쓸생각도 하지 안혓다。

하긴 그때의 병원약이 그리 신통할것도 업슬는지 모르나 촌간에서 한약 으로만 다시려보다 말엇슨 그병에 혹시 양약을 써 보앗더면 사러낫슬는지 도 모르겟다는 여한이 업지안타 비록 살지는 못햇다 할지라도 그래보앗다면 원이나 업지안흘것이아닌가?

인숙은 불현듯 이런생각이이드러가니 더욱 통분한 생각이어가슴속을 치미러오른다。 어린 자식도 여북해야 그런소리를 하느냐고……

『오냐 그래라!……너는 이담에 커서 조흔의사가 되여라! 그래가지고 불상한 병자들을 잘 고처주어라! 그럼 너는 훌융한 사람이되고 하누님께서도 후하게 상주실게다!』

인숙은 어느듯 아들의 말이 가상해서 마음속으로 우름을삼키고 다정한 말로 타일럿다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천당에 게시우?』

『아버지야 천당에 게시겟지』

『그럼 어덩에 가서 만나볼수 잇수?』

『그건 네가 착한사람이 되면 천당에 가게 될테니까 그때는 물론 만나보일수 엇지안켓늬』

『아ㅣ참 착한 사람이 되여야 천당에 드러간댓지 부자가 천당에 드러가기는 약대가바눌구멍 드러가거 보다 어렵것지!……어머니 그럼 난 착한 사람이 될테야! 웅……』

『오냐 그래라!』

『어머니도 착한사람이 되여서 천당에 가시지? 그러치!』

『웅…어머니는 봐야 알지…』

『보긴 멀 바… 가치가 웅? 어머니! 아버지 산수가 어듸유?』

어느틈에 모자의 발길은 공모지롤다왓다。 총총한 고총이박아지짝을 업허논것가티 저마다 떼짱을 안꼬잇는데 인숙은 묘표(墓標)를 차저 나가다가、한무덤 아페가 우뚝서드니、별안간 풀업드러지며 흘흘 늑겨울기시작하엿다。

『어머니!』

덕근이도 어머니를 부르며우럿다。

六月號 少年 오늘發賣

探偵小說 『少年』六月號부터 新連載!!

白假面 金來成

白白敎와 한속? 쪽으로 사라지자 自働車로 그뒤를쫏는 姜永吉、朴大準의두少年! 朝鮮서처음보는大探偵冒險小說!

鍾路한복판에나타난白假面! 姜博士를말에잡아실고三淸洞!

새少年讀本 曺晩植

七百萬朝鮮少年에게 보내는先生의당부! 朝鮮少年은 누구나 한번 읽어야할 晩植先生의 사랑에넘친 말슴! 읽어서 고대로가르는 課外讀本!

★少年知識 ★少年科學 ★少年遊戲 ★少年新聞 ★少年畵報 ★少年作品

웃음지안는少年

★기특한少年들★ ▲馬海松 ▲李石薰 ▲蔡萬植 ▲李軒求 ▲金復鎭

健康讀本 鄭潤鎔

우선健康! 이것을읽으면누구나 다튼튼해질수 가잇다!

六月유두이야기…金道泰

재미나는조선말…崔鉉培

童謠・李元壽 漫畵・鄭寬澈

본받을外國少年 李克魯

世界各國을 두루두루 돌아오신 李克魯 先生의 보배로운 선물!

飛行家가되려면 李貞喜

小說 어머니찾어서 蔡萬植

長篇童話 웅철이의모험 朱耀燮

땅속나라에 다당나라로 전쟁이낫다! 웅철이는 어찌되나? 大冒險童話

連載漫畵 고정정이 鄭靑羽

▲童謠作曲 누나얼굴…朴泰俊作曲 尹石重作謠

▲色刷漫畵 낙시질…吳澤基

웃는門에 福이드러온다

純情美談 뻐국새이야기 李孝石

뻐국새소리를 무척 조와하는 아버지! 거진거진들아가게된 아버지를위하야 뻐국새가되어 뻐국뻐국 울려들린 어머니의슬픈이야기! 생의 꿈고도고운童話!

猛獸잡기 大畵報

무시무시 코끼리와호랑이 표범을 산채로 어떠케 잡나? 이와 소름끼치는 大畵報! 鄭玄雄氏의 그림 少年六月號의 特輯畵報!

名作童謠劇 샛별집 金圭銀★

地球이야기 沈亨弼★

우리가 살고잇는 이地球는 어떠케 생긴물건인가? 재미잇는 少年科學

장장이야기 장장이그림

한싱싱! 첫여름선물!

幼稚園童話集(特輯)

▲도깨비집…朝陽幼稚園 金喜貞

▲호랑이고개…新明幼稚園 廉福仁

▲옥이와깜둥이…孔德幼稚園 都貞淑

▲세마리곰…延禧幼稚園 李氷玉

동무 사귀기 大懸賞!

時計大懸賞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단十錢 全國書店에 잇다